

창간호

2013년 4월 2일 (화)

www.dtvkorea.org

발행인: 길환영

편집인: 정화섭

취재: 조현국, 장지훈, 정승원, 고은별



(사)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4층

전화: 02-3219-6359

구독신청: dtvkorea.org@gmail.com

지상파 활성화를 위한 「학계·시민단체 자문회의」 출범 수신환경개선과 지상파 다채널 방안 논의키로



왼쪽부터 광운대 문상현 교수,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 강원대 정윤식 교수, KBS 박선규 단장, 기상산업진흥원 이승철 본부장, 서울과기대 김광호 교수, DTV KOREA 정화섭 사무총장, 여성민우회 강혜란 정책위원, 매비우스 노영란 사무국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

집체의 눈에 빠진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의 활로를 찾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방송계가 힘을 합쳤다. DTV KOREA는 지난 3월 14일 지상파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시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DTV 활성화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자문회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시청자 선택권 확대, 미디어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문회의'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매비우스' 등 4개 시민단체가, 학계에서는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 서울과기대 김광호 교수, 광운대 문상현 교수, 강원대 정윤식 교수가 참여했다. 방송계에서는 박재만 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선규 단장, 이승철 기상산업진흥원 본부장, 정화섭 DTV KOREA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거쳐 김광호 교수를 '자문회의' 의장으로 선출했으며 향후 DTV KOREA의 지상파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제안과 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화섭 DTV KOREA 사무총장은 출범 인사말을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 확대와 지상파 방송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와 다채널 방송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의 출범은 최근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 플랫폼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지상파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7.6%이던 지상파 플랫폼의 점유율은 2012년 7.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케이블과 위성은 물론, 서비스를 시작한 지 겨우 3년차에 불과한 IPTV 점유율(18.1%)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DTV KOREA는 '자문회의' 참여 단체들과 함께 4월 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지상파 DTV 활성화 전략'과 'DTV 활성화 기술구현 및 실험 방송 결과'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 중순경에는 지상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도 예정하고 있다. DTV KOREA는 월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과 '지상파 다채널 방송',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도입' 등과 관련된 연구와 토의, 여론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상파 4사 기술부장들은 지난 3월 26일, 지상파 가변다채널 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부가적 방송기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각 방송사 사장 축하 인사말



KBS
길환영 사장

디지털 전환 완료 후 700MHz 주파수 대역의 처리문제와 난시청해소, UHD-TV, 다채널방송 및

N-스크린 전략 강화 등 차세대 방송의 책무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이 앞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지상파 수신인프라망 강화를 통한 직접수신율 제고가 급선무라 할 것이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협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시청자를 지향하는 지상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협회의 사보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BS
우원길 사장

이번에 창간된 DTV코리아 사보는 시청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성실하고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알리는 소식지가 될 것입니다. SBS는 DTV코리아 사보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안착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되도록 성원할 것입니다. DTV코리아 사보 창간에 힘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실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BS
신용섭 사장

DTV 코리아의 사보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지상파 방송의 디

지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발간되는 것이어서 더욱 기대가 큼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그 대상에게 잘 알려져 추진해야 그 실효성이 있듯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DTV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잘 알리고 이에 필요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눈에 본 DTV KOREA

| 출범 2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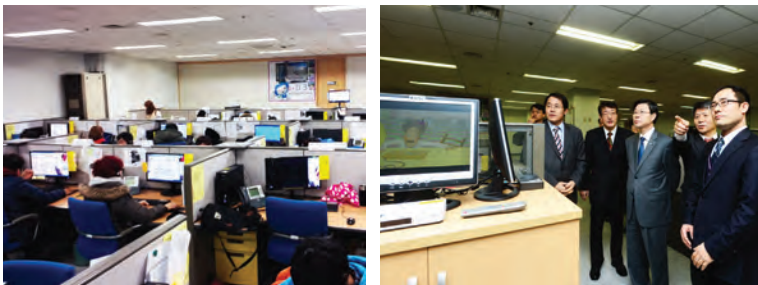
2008년 10월,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추진 기구로서 DTV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DTV KOREA는 지상파 방송4사(KBS, MBC, SBS, EBS)의 연합체이며 디지털 전환 홍보에 이어 디지털방송콜센터 운영, 직접수신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와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홍보 5,764 |



2008년 출범 이후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약 5년간 DTV KOREA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를 전담했다. TV 공익광고, 신문광고, 홍보인쇄물 제작, 프로그램 연계 행사, 이벤트,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으며, 특히 TV 공익광고는 전국 지상파 방송사(민방 포함)에서 2012년 한 해 동안만 5,764회의 광고를 송출했다.

| 디지털방송콜센터 124 |



2010년 2월, 시청자가 디지털 전환 방법, 정부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방송콜센터를 개소했다.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TV 방송 조기종료의 최전방에서 시청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2년 말에는 300명 이상의 상담인력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되도록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 현재도 채널 재배치 대비와 직접수신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시청자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 디지털 전환 교육 25,882 |



DTV KOREA를 통해 25,882명의 주택관리사가 공시청 관련 교육을 받았다. DTV KOREA는 2009년에 주택관리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공시청 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였고 2011년까지 2년간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시청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층을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주부층 등까지 확대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무엇인지, 디지털 전환 및 직접 수신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렸다.

| 소외계층 기부 200 |



2012년 DTV KOREA는 LG전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200대를 기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신대문제로 고통받는 할머니들께 디지털 TV를 지원하고, 영양원, 광명원, 지역 도서관, 군부대 등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디지털 TV를 기부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는 2010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2011년에도 KBS재능나눔봉사단과 협력하여 은평천사원에 디지털 TV를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 23,160 |



DTV KOREA는 유권해석자료집 23,160부 배포를 시작으로 공시청 개보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공시청 개보수 지원 사업은 2010년 12월 16일 「시청자 서비스 강화사업 방송4사 사장단 협약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고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DTV KOREA는 150세대 이상 공시청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의 시청자 지원과 홍보를 맡고 있으며, 150세대 이하 공시청 개보수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사업이 직접수신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고

직접수신 환경 개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송출이 종료되었다. 종료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제기가 너무나 저조해 오히려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90%를 넘어서는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소극적 종료정책의 결과로, 아날로그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또 다른 지표이기도 하다.

속제로 남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약 천만이다. 이들은 현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아날로그로 변환해 전송해주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언제까지 제공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며, 곧이어 고가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수신을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유료방송지원특별법은 과도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전송 의무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해당가구의 절반 정도가 난시청으로 인해 부득이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이 강

하다. 국민 대다수가 소득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도심 지역이 아닌 농어촌 등에 거주하면 할수록 유료방송을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뒤죽박죽된 현실은 속도감 있는 지상파방송 스스로의 수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각지 가가호호에 직접 전파가 도달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채널 경쟁 환경에서 MMS는커녕 KBS와 EBS만으로 축소되는 채널을 선택할 시청자는 없다. 그런데 지역민방의 인프라 구축 정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실내수신 장애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실외안테나 기준 수신 가능성은 양호한 편이나 실내 수신은 여전히 어렵다. DTV코리아가 펼치고 있는 공시청 설비 개선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오랜 유료방송 시청으로 실내 수신에 익숙해진 국민들

에게 실외안테나 설치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를 함께 해결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다. 대다수 국민은 실외에 전파가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세컨드 TV 직접 수신 캠페인' 등 전파 도달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 구축, 직접 수신 가구의 확대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국민에게 유·무료 매체 선택권을 되돌려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무관심, 책임주체들의 이기주의는 원칙적 접근을 가로막아 왔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도기, 즉 지금이 유일하다. 개방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이 다국적 사업자에게 점유된 플랫폼에 휘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직접 수신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가 단순히 시청자의 이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늦는다.

DTV KOREA, 수신환경 개선 위해 직접 나섰다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100% 무상 지원



DTV KOREA에서 시청자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청 설비 무료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월 초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총 100여건의 공동주택에서 신청했으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19세대 이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4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tvkorea.org)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전자우편(dtvkorea.org@gmail.com) 또는 팩스(02-3219-6375)를 이용하거나 직접 콜센터 상담원(1644-1077)에게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4인 이상의 거주자들의 확인서 명이 필요하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 재배치 모의 점검, 과방산 송신소 방문



시청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권역별로 6월, 7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DTV 채널재배치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DTV KOREA, KBS기술관리국이 합동으로 기간국(송·중계소), 간이국(TVR)별로 시스템에 대하여 채널 재배치시 조치해야 할 다각적인 프로세스와 시나리오를 강릉 과방산 송신소에서 모의 점검·확인했다.

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 간담회 개최



지난 1월 31일 DTV KOREA 대회의실에서 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와 DTV KOREA 간부들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시청 훼손에 대한 대응 및 관련 법안 개정, 직접수신환경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선택권 보장과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2011년 7월에 출범했다.

지상파 방송4사 정책 유관 부서 회의 개최



DTV KOREA(사무총장 정화섭)는 지난 3월 27일 목동방송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지상파 방송4사 정책 유관 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4일 DTV KOREA의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KBS 감사실이 2013년도 회원사의 특별분담금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4사 정책 유관 부서 관계자들은 논의 결과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하고 2013년도분 특별분담금(15.5억원)은 당분간 납부를 유예하되, 현재 DTV KOREA에서 추진하고 있는 '19세대이하 공동주택 공시청 무료지원시범사업'의 진행추이와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 회복 등 방송환경 변화를 지켜본 후 재론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4일 DTV KOREA가 출범시킨 '시청자를 위한 지상파 DTV 활성화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는 지상파 다채널만이 아닌 지상파 DTV 활성화 전략 전반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자문회의'운영과 관련하여 DTV KOREA는 지상파 방송4사 정책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4사는 각종 정책관련 부서장 회의체에 DTV KOREA의 참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상파 플랫폼 최전선을 지키는 민합사령부 DTV KOREA 사람들



유료방송 플랫폼에 맞서 수신환경개선과 다채널 위해 동원서주

양천구 목동의 방송회관 1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입구에 '직접수신 준비율 50% 목표'라는 「DTV KOREA」 현판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파상공세에 맞서 지상파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전초기지이자 야전사령부 「DTV KOREA」이다. 현재 「DTV KOREA」는 김환영 회장을 대신하여 정화섭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인

력이 파견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KBS가 3명(조현국 기획실장, 정종완 경영팀장, 김경훈 직접수신인프라 2팀장), MBC(이선택 대외협력팀장), SBS(신중섭 직접수신인프라 1팀장), EBS(방현철 조사통계팀장) 등 6명이 유료 플랫폼 사업 자들과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다.



정화섭 사무총장은 KBS에서 감사부장과 기술관리국장을 거친 대표적인 기획통. 지난해 6월 부임한 정 총장은 DTV 전환 이후 뚝 떨어진 지상파 플랫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신환경개선사업과 수신서비스센터 구축, 다채널 도입을 위한 「시청자 자문회의」 출범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중섭 직접수신인프라 1팀장은 SBS에서 스포츠 국장을 역임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 동료들은 업무 추진력이 좋고 친화력이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현장에서 땀 만큼 열정적이면서 배움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다.



방현철 조사통계팀장(EBS)은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이 많은 편이다. 일처리가 빠른 편이어서 'LTE 방팀장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는 신중섭 팀장을 잘 막아줘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최근 지상파 활성화를 위해(?) 담배를 끊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30여 년간 수신서비스 분야 경력을 가진 김경훈 직접수신인프라 2팀장은 적절한 위트로 웃음을 선사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세심한 지도를 해 주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직원들이 꼽는 「DTV KOREA」의 애이스는 단연 정종완 경영관리팀장이다. 호남형 외모에다, 직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언제나

자상하게 설명하는 매너, 최근 팀원의 부족으로 생긴 공백까지 채워줘 직원들 사이에는 '아이돌' 인기가 부럽지 않다.

이선택 대외협력팀장은 문화방송 출신으로 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재주꾼. 특유의 섬세하고 친화력 있는 성격으로 3월 중순 출범한 「시청자 자문회의」 운영과 대외업무를 맡고 있다. 4월 2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리는 「DTV KOREA」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조현국 기획홍보실장은 「DTV KOREA」의 기획과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KBS 홍보실에서 일하다 지난 1월 이곳에 왔다. 원래 호기심이 많아 KBS에서 17개 부서를 섭렵했던 그는 이곳에서도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의 「DTV KOREA」 역할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근 사업 축소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DTV KOREA」에는 10명의 상근 직원들이 일한다.



인원이 가장 많은 부서는 기획홍보실로 장지훈 과장과 정승원 대리, 김도경 대리, 최근 입사한 고은별 사우가 있다. 장지훈 과장은 사보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보도기사 작성,

트윗과 페이스북 등 「DTV KOREA」 홍보의 기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 구축하는 홈페이지는 어떤 기기에 서도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되고 있다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경영관리팀의 구성원은 박경철 과장과 이현주 사우 등 2명. 박경철 과장은 강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계, 관제, 서무 등 일인 다역으로 협회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이현주 사우는 직원들의 급여지급과 탕비실 운영 등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 살림꾼이다.



직접수신인프라팀의 최형욱, 김공탁 대리와 남효성사우는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을 맡고 있다. 19세대이하 공시청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문의 전화를 받고 지원일정을 설명하는 모습에 사람 좋은 김 대리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난다. 조사통계팀의 김윤지 사우는 디지털 방문 수신문의와 공시청 시설 지원 접수 외에 문서 디자인에도 일가견이 있어 각종 홍보자료의 마지막 작업은 항상 그의 몫이다.



「DTV KOREA」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을 저지하여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송4사의 전략기지이다. 「DTV KOREA」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시청자들과 무료 플랫폼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이들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다.